

# 전남 조선기자재업 쇠락 이유 있었다

### 해양플랜트 업체 대부분 소규모 ... 영남 대기업 하청

### 전남대 연구팀 "구매·판매 네트워크 확대 경쟁력 키워야"

전남의 해양플랜트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기업 규모로 영남권에 자리한 대기업들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과의 하청 관계로 인한 구매·판매 네트워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자체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남대 변장섭·나주봉·유창호·신승식 박사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조선해양플랜트 제조업체의 구매·판매 네트워크 : 전라남도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조선업 전체와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는 전남도내 해양플랜트 업체 1231개 업체(2014년 말)

를 전수조사했는데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주)이 해양플랜트 산업 구매·판매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업체는 목포, 영암 등 서남권에 업체들이 집중돼 있었다.

이들 업체들의 구매·판매 거래건수를 분석한 결과 구매는 전남 492건(49.0%), 광주 146건(14.5%), 서울 83건(8.3%), 부산 57건(5.7%), 경남 47건(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판매는 전남 563건(61.0%), 서울 60건(6.5%), 경남 57건(6.2%),

경북 46건(5.0%), 울산 40건(4.3%) 등의 순으로 구매와는 다소 다른 패턴을 보였다.

전남도내 해양플랜트 업체들은 구매 측면에서 현대중공업(주)을 중심으로 목포·영암·광주의 중소기업체들과 강하게 연결돼 있는 반면 판매 측면에서는 현대중공업(주)은 변함이 없지만, 그 외에 (주)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주) 등 울산·포항·사천 등 대기업과 거래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영남권과의 거래 횟수는 163건으로 전체 923건 대비 17.7%에 달했다.

연구팀은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로 영남권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전남도내 하청업체들이 실제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도내 조선해양플랜트 제조업체들의 판매 거래를 위한 네트워크를 해외나 타 지역 등에서 다양하게 확보하는 한편 지역 내 대기업 추가 유치, 지역 중소기업의 자체 제품 생산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용 시추·생산·운송·저장 관련 기자재, 해양레저장비의 종합엔지니어링 산업으로 철강·기계·전기·전자·화학 등 후방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도내 제조업체 7672개 가운데 1231개가 조선해양플랜트 연관업체로, 전남도내 제조업체의 16.05%를 차지하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충장로서 '영암 왕인문화축제' 홍보 캠페인 26일 오후 전통평영암군수, 박영배 군의회 의장, 축제 관계자들이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원에서 오는 4월 6일부터 9일까지 영암에서 열리는 '2017 영암왕인문화축제'와 '제6회 대한민국 한옥건축박람회'를 광주시민들에게 알리는 거리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최해배기자 choi@kwangju.co.kr

## 한국관광금지 지시에 中 단체비자 신청 '0'

### 개별 비자 신청 절반 감소

### 한국인 중국행도 급감

중국 당국이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진행에 따른 보복의 일환으로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을 금지함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한국행 단체 비자 신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인 1선 도시뿐만 아니라 소규모 행정

단위인 3선 도시까지 중국 전역에서 한국 단체여행이 완전히 막힌 것으로 중국 당국의 철저한 규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6일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여유국이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금지일로 정했던 지난 15일 이후 현재까지 한국행 단체 비자 접수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국 자유 여행을 하려는 중국인들의 개별 비자 신청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한 소식통은 "중국인들의 한국행 개별 비자 신청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단체 비자는

지난 15일 이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선 도시뿐만 아니라 3선 도시까지 모두 한국행 단체여행이 막힌 것으로 이는 중국 여행사가 자체적으로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단체 비자를 신청할 수 없도록 중국 당국이 중간에서 아예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사드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이달 초 주요 여행사들을 소집해 한국 관광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하라며 관련 지침 7개 항목을 구두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실제 단체 비자 신청이 전혀 없다는 점을 볼 때 이 지침이 명백히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7대 지침에는 단체와 개인(자유) 한국 관광상품 판매 금지, 롯데 관련 상품 판매

금지, 온라인 판매 한국 관광상품 판매 종료 표시, 크루즈 한국 경유 금지, 관련 지침 어긋시 엄벌 등이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항의 등을 위해 국가여유국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만남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자 중국 국적 항공사들은 이미 대대적인 감편에 들어갔고 에어부산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도 감편 또는 투입 기종을 소형으로 바꾸는 등 자구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중국에서 사드 반대 시위로 태극기를 훼손하는 등 반한(反韓)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자 한국인들의 중국 여행 취소도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 4·12보선 전남 3개 선거구 11명 등록 ... 경쟁률 3.7대1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전남지역 4·12 보궐선거는 3개 선거구에서 11명이 등록, 3.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6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3일과 24일, 이틀간 진행된 후보등록 결과 전남도의원 해남 제2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양재승 전 해남부군수와 국민의당 박성재 땅끝농협이사 등 2명이 등록했다.

여수시의원 나선거구는 ▲민주당 김승호 전 곡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국민의당 이정만 법무사 ▲민중연합당

김종근 민중연합당 노동자당 전남도당 부위원장 ▲무소속 박남조 월호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무소속 최처중 무덕체육관장 등 5명이 등록했다.

순천시의원 나 선거구는 ▲민주당 강형구 전 순천시의원 ▲국민의당 김호준 전 낙안원예협회장 ▲무소속 이명옥 전 기자 ▲무소속 최진도 전 별량농협협동조합장 등 4명이 등록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사전투표는 4월 7~8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 연 48% 불법 고리 사채 물의 광양시의원 제명

최고 연 48%의 불법 고리 사채로 물의를 빚은 지방의원이 제명됐다.

광양시의회는 지난 24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찬성 9명, 반대 3명으로 제명했다.

이 의원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제명에 찬성함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 이로써 광양시의회는 총원이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월 90만원(연 36%), 지난해 7월부터는 월 120만원(연 48%)을 받아 갚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전남도 할랄 인증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모집

### 다음달 3일까지

전남도는 할랄 인증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4월 3일까지 동남아 3개국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

동남아 시장개척단은 오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해 현지 바이어와 자사 상품에 대해 1대1 방문 상담 활동을 펼친다.

세계 할랄식품 시장은 2016년 기준 1조200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세계 식품시장(6조3000억 달러)의 17.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할랄식품 시장은

2020년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돼 매력적인 블루오션으로 꼽힌다.

시장개척단은 10개 업체 내외로 구성되며, 업체 선정은 현지 시장성과 수출 능력, 바이어 발굴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참가 기업으로 선정되면 바이어 발굴비, 현지 통역비, 상담장 임차료, 항공료 50%(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업은 잔여 항공료와 숙박비만 부담하면 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전라남도 수출정보포털(www.jexpor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남도 국제협력관실에 신청하면 된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에 김성재 전 장관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신임 이사장에 김성재 현 부이사장을 선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임 김 이사장은 국민정부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 민정수석비서관,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전임 전운철 이사장이 지난달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 사퇴하면서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지만 김 이사장

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2년4개월)가 끝나는 2019년 7월 31일까지이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고 김 전 대통령의 민주주의·인권·평화 정신을 기리고자 2013년 목포 삼학도에 개관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 착한보청기

# 보청기

#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총-30812호

##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임정승 원장

#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암로 392(월곡2동 679-3)